

야권 총선승리 경제민주화 '주목'

더민주, '양극화 해소 777플랜' 공약 국민의당,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약속

4·13 총선에서 '경제 심판론'을 앞세운 야권이 승리하면서 경제민주화가 다시 한 번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지에 관심이 쏠린다. 2012년 대선때 경제민주화 구호를 내세워 정권을 재창출했던 여당은 이후 보수당의 정세성으로 돌아와 이번 총선을 치렀다. 경제민주화보다는 산업 육성이나 경기 부양에 힘을 실은 경기활성화 공약을 내세웠다. 또 야당을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의 발목을 잡는 세력으 규정하고 야당 심판론을 호소했다.

반대로 야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다시 한 번 전면으로 내세웠다. 경제정책은 동반성장과 소득 증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야당은 대기업 집중 현상, 소득 격차, 저성장 등의 원인이

정부 정책 실패에 있다며 '정권 심판론'을 외쳤다. 결과적으로 야권이 17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면서 경제 정책의 주도권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777 플랜'을 내세웠다.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공약이 주로 재벌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777 플랜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득 분배율, 중산층 비중을 각각 70%대로 높인다는 것이 목표다.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하고 임금을 올린 수준 따라 기업의 사내유보금과 세 시 이익을 주는 방안을 내세웠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내형복합소공물에 대한 합리적 규제',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 재벌과 중소기업 문제와 관련한 공약도 세웠다.

국민의당의 경제 공약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무게가 실린다.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에 배분하는 대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초과이익공유제', 원재료 가격을 납품단에 반영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한 '납품단위연동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는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강화하는 '다중대표소송제'와 '부자·소비자 집단 소송 활성화',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경제민주화 공세에 크게 반응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이성주 기자



임실엔터테인먼트 사립단은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전주 동물원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임실엔치즈'에 대한 홍보·관객행사를 실시한다.

임실N치즈 전주 동물원 찾아 홍보

15~24일까지 금·토·일
치즈·요구르트 무료시식

(사)임실엔터테인먼트 사립단(이사장 심민 군수)은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매주 금·토·일 8일간 전주 동물원(시민탑 앞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임실엔치즈'에 대한 홍보·관객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홍보행사는 유제품 주 소비층인 어린이와 부모들이 많이 찾는 전주 동물원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임실치즈 공병브랜드인 임실N치즈 홍보를 위해 치즈·요구르트 무료시식 및 다양한 행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립단은 '임실N치즈'의 우수성을 홍보해 소비로 연결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재)임실치즈테마파크가 공동으로 참여해 맛있고 신나는 치즈체험을 실시 임실치즈체험 관광 및 청정 임실군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유제품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임실N치즈'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신제품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임실·전흥영 기자

동력있는 노동개혁 전면 재조정 '불가피'

새누리당 총선 참패... 국민의당도 반대 입장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의 전면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여당이 과반 의석은 커녕 제2당으로 내려간데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 직후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료화) ▲파견법(파견업무 확대)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자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 5대 법안을 발의했다. 연내 일괄 처리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였다.

하지만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비정규직 쟁점을 법안에 포함시키며 문제가 불거졌다.

노동계는 노사정 대타협 위반이라며 반발했고 야당도 비정규직 양

산 법안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결국 극심한 이견으로 노동개혁 입법은 흐지부지됐고 해를 넘기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원내교섭단체로 진입한 국민의당도 비정규직 법안 개정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원만한 논의를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한 발 물러나 타협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거대 양당 체제가 아닌 다당 체제에서는 서로의 주력 정책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주요법기'식의 협상전략도 활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전문가들은 노동개혁이 시급한 만큼 여야와 노동계가 시각 차이를 좁혀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총선 결과가 답보 상태에 놓인 노사정 협의의 물꼬를 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이성주 기자

해전산업, 말리 댐 건설공사 계약 체결

수문·기계장치 제작·설치

전라북도 선도기업인 해전산업(주)이 1,830만불 규모의 아프리카 말리 '덴네(Denne)' 댐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사는 총 공사비 222억원이다. 삼성물산과 함께 진행되며 해전산

업의 지분은 186억원(83.6%)을 차지한다. 해전산업은 이번 계약을 통해 댐 수문 및 기계장치의 설계, 제작·설치 등과 관련하여 2년간 최소 1,530만불의 매출을 확보하게 됐다.

공사는 조만간 말리 정부로부터 설계 승인을 받고 수문제작 승인 절차를 거쳐 본격 설치가 진행된다.

해전산업은 이번 공사를 계기로 기술력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해외 프로젝트 수주 성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테크노파크 백두옥 원장은 "도내 기업의 기술력이 해외에서 인정받아 큰 계약을 수주하는 사례가 생겨 매우 기쁘다. 도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기술력과 마케팅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정읍농어촌공, 전입직원 시설물 현장 적응훈련

양·배수장 가동요령 숙지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정동환)는 2016년 전입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관내 공사현장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한 현장적응훈련(On The Job Training)을 실시했다.

정읍지사에 신규로 전입한 직원 16명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와 타 부서의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 현장적응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지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목표에 대한 세부추진 요령 ▲일선지소 농업용수관리 및 수리시설물관리 요령 ▲양·배수장 가동 및 관리요령 ▲농업용수개발 및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방안 ▲농업인의 요구사항 수렴과 처리방안 등 업무처리에 대한 사항을 지사 관내 현장을 직접 방문 체험을 벌였다.

이번 현장 견학은 전입직원들의 새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는 전입직원 대상으로 현장적응훈련을 실시했다.

로운 근무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시설물 위치 및 양·배수장 가동(관리)요령 숙지 및 직원들의 화합을 다짐함으로써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어떠한 재해에도 이겨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훈련을

실시했다. 한편, 정동환 지사장은 이번 현장견학은 갑자기 근무 환경이 다르겠지만 1만800ha의 관할구역을 직접 개개인이 조속히 파악하고 적응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경진원, FTA 실무교육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4월 4~14일까지 약 2주동안 도내 중소기업 실무자, 유관기관 담당자, 무역전문희망 대학생을 대상으로 FTA 실무 및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 33명이 FTA 실무교육 및 원산지관리사 양성과정을 수료했다.

교육과정 수료생들은 오는 4월 30일 2016년 제 6회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FTA스쿨은 경진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교육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역 FTA 활용지원센터(063-711-2050)에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

신보, 중기 인수·합병 지원

신용보증기금 회남영업본부(본부장 한기정, 이하 '신보')는 14일 지역 중소기업의 M&A를 통한 외형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M&A보증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A보증이란 인수·폐인수기업이 모두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로서 인수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M&A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신보가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금융회사의 대출 위험을 경감시켜주는 보증상품이다.

신보의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M&A는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국내기업 간 M&A로서 경영권 획득이 수반되는 합병, 주식인수, 영업양수 등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고, 지식기반기업(벤처기업, 부품소재기업, 기술집약산업영위기업 등)과 같은 지식기반기업의 경우 최대 70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영수 기자

전북銀, 공무원연금 복지카드 출시

14일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 제휴를 맺고 '공무원연금복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신상품을 1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공무원 연금복지 카드 중 '주유특화카드'는 GS칼텍스 주유 및 충전시 기본 리터당 120원, 빨간날 리터당 150원 할인되는 주유 청구할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쇼핑/백화점/대형마트에서 5% 청구할인, 외식/커피업종 10% 청구할인 받을 수 있고, 국내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금액의 0.1%를 포인트로 제한 없이 추가 적립해 준다.

이번 복지카드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용금액에 따라 응모시 최대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 제공, 신규 후 50만원 이상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개인별 100만원(1명), 50만원(2명), 10만원(10명)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정영수 기자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채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채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